

한국 전통주거문화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도입한 친환경적 미래 공동주택 모형

김경환* · 심우경**

*고려대 대학원 ·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1. 序論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 중 주거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인자 중에서 가장 밀접해 있는 영역이므로 그 중요도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거는 물리적·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 영역까지 충족시켜주는 보금자리이어야 한다. 주거는 단순한 공간(space)이 아니라 문화 시스템으로서 물리적 환경을 토대로 형성되고 주거 집단이 머무르는 장소(place)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집단의 삶의 방식을 대변하며, 또 물리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주거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주거의 형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93만명(인구밀도 478.4명/km², 세계 3위)으로 인구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총 인구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도시화율도 점차 증대하여 2003년까지는 89.8%이며, 2010년까지는 9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인구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7%에 불과하나 인구 약 45.3%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택보급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주거 형태의 절반 이상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645만호로 전국 총 주택의 52%이며, 특히 최근 추상복합 아파트가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기묘한 집합주거 문화는 국가 주도 근대화의 산물이다.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사회 변화는 경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주거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 왔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높은 고층 공동주택의 비율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단

독주택에 비해 생활이 편리하고 주거비용도 적게 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주거의 질적인 측면이 경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주거 문화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비록 경제 논리가 앞선 비이상적 주거공간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주거계획가들은 단독주택이 지닌 물리적 환경의 독자성, 생활에서의 안전성, 유지관리의 독립성, 높은 거주성, 주변 환경에의 적응성, 공간이용의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리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이를 공동주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외부 환경오염 방지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공기질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문화 code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well-being의 유행과 함께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새집 증후군이란 새 건축물의 자재나 도료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호흡계 증상 및 신체의 부조화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짐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가 주거 문화에 요구하는 새로운 paradigm인 친환경적, 가변적 주거, 그리고 함께 공유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전통 주거문화와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공동주택이 물리적 주택공간만이 아닌 감성적 주거문화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조성 방향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크게 이론 연구와 사례연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론 연구는 한국 전통 주거문화의 생리·생태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사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과 환경 체계(man-environment system)의 입장에서 주거의 근본적 의미 즉, 환경으로서의 주택, 문화현상으로서의 주택 등 그 이론적 배경과 실례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의 전통주거를 대표하는 한옥의 구조 및 형태 그리고, 그 형성을 좌우하는 공동체로서의 마을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주거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 이념 및 철학에 대한 고찰하였다.

셋째, 현재 주거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apartment house)의 도입 배경과 형성과정 그리고 제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현대 주거문화 흐름의 하나인 생태건축, co-housing, 생태마을론, 전통생태학 등의 일반적 이론 및 사례를 요약정리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표적 전통 민속마을 중 아산 외암마을,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순천 낙안읍성 등 4곳과, 한국적 전통성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현대건축물 중 대표격인 수졸당, 미제루, 평심정의 3곳을 사례지로 선정하였으며, 마을 개념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있는 co-housing의 사례지로는 경기도 파주의 초록마을과 헤이리 예술인 마을 두 곳을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고보다는 우리 전통 주거문화에 숨겨진 환경·생태적 가치와 가능성을 탐구하여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새로운 code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공동주택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III. 未來 住居 規範에 대한 考察

주거란 사회공간적 시스템으로서 변화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시스템으로서 항상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원적이고 질층적이며, 복합문화적 양상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주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식주 기능만이 아니라 복합적 생활기능과 문화를 수용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이연숙, 2005). 주거문화의 발전과정으로부터 주거의 본질과 의미와 같은 주거문화의 특성은 지속되거나 주거 계획의 방법과 주거 규범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 주거는 건축가나 디자이너에 의해 혁신적으로 제안되거나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공간의 검증은 실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난 1970년대에서 80년대 여러 건축가와 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된 주거공간의 실험이 실제적으로 일반주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주거 공간이 어느 개인의 이상과 의지만으로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성중, 2001).

강영환(1999)은 주거의 의미에 따라 향후 주거문화의 주거규범은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지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째, 안식처(shelter)로서 주거라는 측면에서 자연환경에의 대응을 들 수 있다. 과거 주거는 자연환경,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자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전통주거를 형성하여 왔으나, 과학적인 환경설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주거형태나 공간 계획이 제약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 주거는 자연환경의 대응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유효하나 그 적용 방법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의 기후와 감각에 맞는 주거 형태와 기술개발, 더불어 자연에 근접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규범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생활의 근거지로서 주거는 가족들의 일상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주거공간 안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먹고(食), 입고(衣), 자는(住) 것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손님을 맞고 각종 제례를 행하는 사회적인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 주거생활은 가족 구성원의 연령, 가족 수,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문화권마다 다른 주생활의 양식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주거에서는

가족생활의 유지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주거문화는 편리한 생활도로로 가사노동의 양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이 가족생활의 규범이나 가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산업화 시대에 강요되고 획일화된 주거 양식은 다양한 주거 생활을 담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주거공간에서는 지켜야 할 여러 규범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는 사회적인 신분계층의 분화와 더불어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주거공간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욕구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려는 수단인 동시에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 정신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및 개성과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을 존중하고 이를 통한 문화의 다원화 및 다양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거공간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단계에서 주거공간의 디자인에서 남과 차별되는 나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 도시의 공동주택과 같은 획일적인 주거 문화에 반발하여 더욱 다양하고 개성 있는 주거 공간의 추구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미의식과 조형원리는 그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만큼 전통주거공간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도 다양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유효한 방법의 하나이다.

넷째,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주거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도시와 같이 밀집된 환경 속에 자리 잡은 주거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주거공간은 도시 혹은 취락 속에 조화를 이루어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의 취향이나 이익만을 극대화한 주거공간과 기능은 도시경관의 기능이나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거공간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 하수와 쓰레기, 소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개인의 주거공간은 도시라는 집합체 속에서 이웃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은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되는 형태와 구조를 취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1987년 Burundtland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경제

표 1. 주거규범의 변화 방향

주거로서의 기능	대응요소	변화 방향
안식처	자연환경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가족생활 근거지	주생활	거주자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주거
인격의 상징	인격과 개성	개성의 다양한 표현, 전통미의 계승
사회 환경 요소	도시적 맥락	사회적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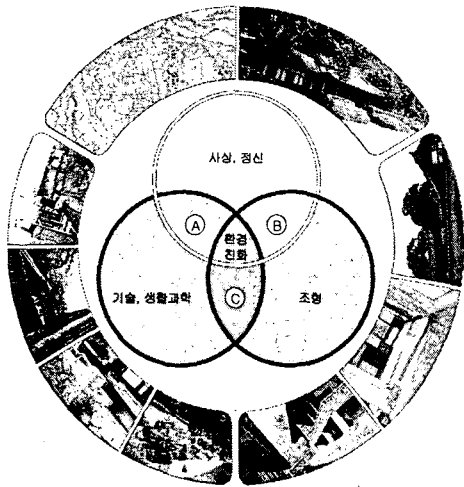
자료 : 강영환, 1999 : 215-218. 필자 인용. 재구성

적 성장이나 자원의 이용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 경제나 정치적 발전 과정'을 포함한다. '삶의 질'이라는 정성적인 주제는 모호하지만 자연의 태두리 안에서 인간 요구의 영속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획득 가능한 중간 단계의 vision을 제시할 수 있다(James Steele, 1997). 이는 지금까지 이용이나 통제 대상이거나 관심 밖으로 방치되어 있던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이며, 인간도 이러한 자연환경의 구성원이라는 겸허한 자세의 회복이다. 생태적인 주거단지에 대한 논의도 총체적인 환경에 관한 논의와 병행하여 자연을 개발하는 인간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結論

일반적으로 전통주거에서 발견되는 한국성은 분절과 연계, 채움과 비움, 크고 작은 공간 구성에서의 완전하게 독립적이지 않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관계, 각기 다른 새로운 공간과 공간, 자연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이종희, 2004).

이는 전통주거의 공간적 특성과 맞물려 한국인들의 전통적 삶의 형태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성의 영역까지 충족시켜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전통주거의 한국성은 서구적 주거관의 급격한 유입에 따라 일시적 외면을 당하기도 하였다. 서구식 주거관의 유입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우리의 전통적 주거문화 및 감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실질적 경제성장 후인 현대에 와서 전통주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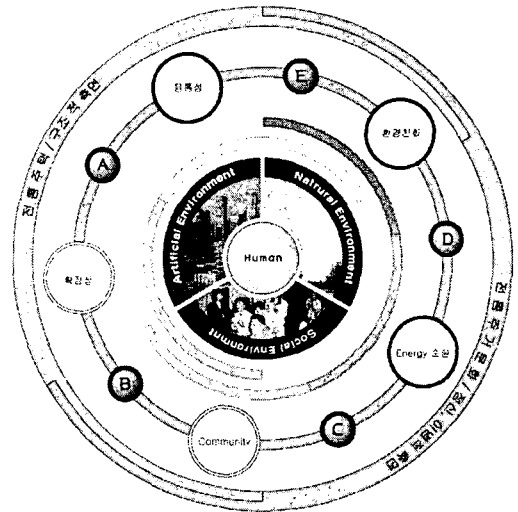
사상, 정신	A : 기, 풍수, 환경친화
기술, 생활과학	B : 재료, 마당, 마루, 온돌, 반청, 공, 다락방, 기단, 기와
조형	C : 석재, 선, 침호, 난간, 문양, 벽채, 지붕

그림 2. 전통주거의 의의 개념도

한국성의 의미 가치와 중요도에 대한 재평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논의 되는 전통주거의 의미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앞서 연구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전통주거의 한국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논할 때 한국성을 대변하는 공간으로서 마당을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전통 마당 또는 넓은 의미로 마을이 지니고 있었던 공간적 특성은 융통성, 공유성, 그리고 친자연성을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현대 집합주거 단지에 접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주택이 갖고 있는 융통성과 확장성 등의 제반 특성들이 우리의 주거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그림 2는 전통주거문화의 한국성을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분류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친환경적 미래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A	공동성 & 확장성	기반형 설계 (Open Housing System)
B	확장성 & Community	Open Space, Co-housing
C	Community & Energy 순환	친환경 공동체 의식(공간) 조성, Zero Emission
D	Energy 순환 & 환경친화	Passive System, Steel House, 대체 Energy
E	환경친화 & 공동성	친환경 소재, 녹색 기법

그림 3. 친환경적 미래 공동주택 구현 방안 모형

여태까지의 공동주택은 양적인 면에만 치중해 왔으며, 경제성 이론에 의해 근본적 주거의 의미가 희생되어 왔다. 이제는 전통주거문화에 깃든 환경·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그 안에 면면히 숨쉬고 있는 모듬살이의 감성적 공유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引用文獻

1. 강성중(2001) 한국전통주거의 변용과 재해석에 의한 현대주거 공간 디자인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강영환(1999)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3. 이연숙(2005) 미래공간과 디자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4. 이종희(2004) 전통주거공간 해석에 의한 한국성의 정립과 이의 미래집합주거공간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James Steele(1997) Sustainable architecture. McGraw-Hill.